

2004 추계학술대회 자유연제 2

7. Management of Iatrogenic Pharyngo-esophageal Perforation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흉부외과

박재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의인성 인두-식도천공 11례를 치험하였다.

천공의 진단은 내시경검사, 식도확장술 혹은 기관삽관 후 지속적으로 발생된 흉통과 흉부 X-선에서 경부 혹은 종격동 기종이 있으며, 시술의가 천공의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 진단하였으며, 식도조영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의 남녀 비는 4:7로서 여성에서 많았으며, 연령은 21세에서 81세로 평균 47세였다.

6례는 본원의 내과에서 전과되었고 5례는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왔으며, 천공 후 본과에 내원까지의 시간은 2시간에서부터 8일까지로 다양하였는데, 내원 시 경부 혹은 흉부에 농양이 형성된 경우가 5례였으며, 6례에서는 흉통과 종격동 기종 혹은 경부 기종만이 관찰되었다.

천공의 원인으로는 위내시경검사가 6례로 가장 많았으며, 식도 협착에 대한 식도확장술이 3례, 그리고 식도 생검과 기관내 삽관에 의한 경우가 각각 1례씩 있었다.

천공의 부위는 인두와 상부식도가 3례 그리고 흉부식도가 8례였다.

치료는 7례에서 응급적 정복술 혹은 폐쇄성 흉강 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4례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고령의 1례에서는 폐부종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사망률은 9.1%였다.